

# 사랑콘텐츠의 춘향제 일고찰

서정섭(서남대)

## 〈목 차〉

- |                  |                 |
|------------------|-----------------|
| 1. 머리말           | 5. 사랑 주제의 춘향제   |
| 2. 춘향제 현황 분석     | 6. 축제 예산과 행사 종목 |
| 3. 춘향제 추진방향과 문제점 | 7. 마무리          |
| 4. 참여자 지향의 춘향제   |                 |

## 1. 머리말

이 글의 목적은 우리나라 대표 축제 중 2013년 현재 역사가 가장 오래된 제83회 춘향제의 현황과 향후 나아가야 할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탈리아 베로나시에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이 있다면 남원에는 성춘향과 이몽룡의 사랑이 있다. 베로나시의 이미지가 로미오와 줄리엣, 오페라로 대표된다면, 남원은 성춘향과 이몽룡, 판소리로 대표되어 두 도시는 유사한 점이 많다. 베로나시와 남원시는 사랑 문학과 전통 음악이 집약된 문화 예술의 고장이다.

남원시는 1997년도부터 베로나시와 교류를 통해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 이야기와 ‘성춘향과 이몽룡’의 사랑이야기를 접목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sup>1)</sup> 동

서양의 사랑의 만남, 오페라와 판소리의 만남은 의미 있는 일로 앞으로 남원시가 베로나시와 활기찬 교류를 통해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여행총정리’ 앱에서 2013년 4월 27일 여행객들이 찾은 실시간 여행지 검색 순위 10위를 선정했는데 춘향제가 10위권 안에 들었다.<sup>2)</sup> 봄철에 꽃을 주제로 한 축제가 검색 순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통문화축제인 춘향제가 10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그만큼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다는 반증이다.

## 2. 춘향제 현황 분석

춘향제는 광한루원 요천무대에서 열린 개막식<sup>3)</sup>, 소리꾼들의 명창 등용문인 춘향국악대전, 춘향제향, 판소리완창, 전국시조경창대회, 전국궁도대회, 민속씨름대회, 전통혼례, 춘향사진촬영대회, 춘향백일장, 춘향사랑 그림그리기대회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펼쳐진다. 신관사또부임행차, 춘향그네뛰기, 춘향사랑과 몽룡 과거시험 합격을 기리는 합환·장원주 체험 등의 프로그램도 있다. 광한루 누각에서는 춘향국악대전 대통령상 역대 수상자와 남원 출신 명창이 판소리 춘향가를 바디별로 연창한다. 춘향전을 12마당으로 연출해 전통과 지역 특색을 살린 춘향길놀이도 시내에서 진행한다. 상설형 중심프로그램으로 춘향시대 속으로를 통해 축제기간 동안 관광객들이 죄인 압송 함거, 사인교, 복식, 형틀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춘향제는 사랑의 테마도시 남원을 대표하는 축제로서 매년 사랑을 주제로 한국 최고의 전통문화축제이자 문화관광축제로 개최되고 있다. 2009년부터

---

1) 2008년 10월 베로나시청에서 맺은 우호교류 협약과 2009년 11월 남원시에서 정적교류 협약을 맺었던 남원시와 이탈리아 베로나시는 2010년 9월 16일 두 도시간의 문화예술 교류와 우호 증진을 위해 회동을 했다.

2) ‘봄꽃을 찾아 떠나는 주말 여행, 검색 1위는?’(아시아경제신문 2013년 4월 27일) 참조. 검색 1위는 ‘꽃의 향연’ 고양국제꽃박람회, 2위는 전남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3위는 순천만국제 정원박람회, 4위는 제15회 함평나비축제, 5위는 전남 신안군 임자도에서 열리는 신안튤립축제, 6위는 비슬산 참꽃제, 7위는 금산 흥도화축제, 8위는 골산 진달래축제, 9위는 태안 튤립꽃축제, 10위는 남원 춘향제이다.

3) 개막식은 춘향제를 기념하는 남원시립국악단의 개막 퍼포먼스와 KBS 국악단의 축하공연, 60인조 가야금병창, 불꽃놀이 순으로 진행됐다.

2012년까지 4년 연속 우수축제로 선정됐던 춘향제를 한 단계 위인 최우수 축제로 승격시키기 위해 남원시는 심혈을 기울여 왔으나, 삼진아웃 일몰제<sup>4)</sup> 적용으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일반축제로 전환되었다는 허탈감에 빠져있다. 정부는 무분별한 지역축제의 난립을 막기 위해 ‘문화관광축제 3년 주기(2010년 기준) 일몰제’를 2012년에 처음으로 도입했다.

춘향제는 우리나라 어느 축제도 가지지 못한 문화적 자산을 가지고 있고, 사랑을 주제로 한 축제는 춘향제가 전국에서 유일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축제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남원시는 지역 관광산업의 주축이 되고 있는 춘향제가 일반축제로 전락 되어 대외 이미지는 물론 춘향제의 세계화에 찬물을 끼얹게 되고 지역사회가 느끼는 시민들의 패배감도 가중된다고 생각하고 있다.<sup>5)</sup> 정부가 추진하는 관광축제의 일환으로 춘향제를 평가하는 방식은 잘못되었다고 남원시는 주장한다. 춘향제는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관광축제가 아닌 전통을 전승 발전시켜나가는 전통문화예술축제로 특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춘향제는 대표적인 한국 문화예술의 산실이고 춘향제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창과 명창 문화예술인을 배출한 83년 역사를 자랑하는 춘향제를 국가지정 문화축제로 승격시켜 정부가 직접 관리하라고 말한다.

4) 정부는 유망축제(23개), 우수축제(12개), 최우수축제(8개), 대표축제(2개) 등 4가지 등급으로 ‘2012년 문화관광축제’를 선정한 뒤 등급에 따라 국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다. 대표축제(2개)에 각각 6억원, 최우수축제(8개)에 각각 3억원, 우수축제(10개)에 각각 1억5000만원, 유망축제(22개)에 각각 7600만원을 지원한다. 춘향제는 4년 연속 우수축제가었다.

5) 문화관광부에서 춘향제를 평가할 때 대표종목인 「춘향시대 속으로」, 「춘향 길놀이」는 잘 되었다고 호평했고, 축제경관의 만족도가 상승하였다고 평했다. 광한루원과 요천을 배경으로 한 조형과 조형물로 각색하여 경관을 축제 분위기가 나도록 연출한 점을 좋게 평했다. 그러나 축제운영의 관리력이 부족했고, 국가단위의 축제로서 전통문화축제의 매력도가 부족하여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평했다.

남원 시민들은 춘향제를 준비하거나 행사진행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느껴 난장 구경꾼으로 전락되었다고 말한다. 시민들은 춘향제 행사가 변화가 없어 불만한 행사가 없다고 말한다. 관광객들은 볼거리나 즐길거리가 부족하여 춘향제 행사가 단조롭다고 말한다. 춘향제를 준비하는 제전위원회는 춘향제 행사 준비 기간이 짧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춘향문화선양회에서는 남원시가 춘향제 행사에 지나치게 개입하여 행사를 기획하고 집행하는 데에서 소외되었다고 느낀다.

예전부터 행사를 준비하는 제전위원회와 춘향문화선양회, 남원시 사이의 상호불신이 팽배하였기 때문에 춘향제는 오히려 시민화합을 저해하는 축제로 전락된 적도 있었다. 그러나 2012, 2013년도 춘향제 행사에서는 행사 이후에 커다란 갈등이 없이 원만하게 마무리되었다. 이제 는 시민화합의 축제로 변화하고 있다.

춘향제가 전통문화예술축제임에는 틀림없으나 관광객이나 시민에게서 사랑받는 축제인지를 확인하고 대한민국의 진정한 축제로 승화되어야 춘향제가 세계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다. 춘향전의 요람 남원은 사랑의 테마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숭고한 춘향정신을 세계적 사랑축제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춘향제를 사랑 축제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국제적인 사랑의 축제는 이태리 아레나축제(로미오와 줄리엣), 중국의 홍루몽 축제, 한국 춘향제를 꼽는다. 남원을 세계적 사랑의 고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짧은 시간에 가능하지 않다면 5~10년의 긴 준비기간이 소요되더라도 세계적인 사랑의 축제를 유치하기 위해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세계적인 사랑의 축제가 국가 정책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당위성과 필요성을 알려야 한다.

### 3. 춘향제 추진 방향과 문제점

춘향제는 전통문화예술 축제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전통을 살리는 종목으로 춘향제향, 춘향국악대전, 춘향선발대회를 내실 있게 진행하고, 현대적 체험 종목으로 춘향길놀이, 춘향시대 속으로, 춘향프린지 공연을 강화했다. 그런데 전통 종목에 대한 인지도는 높으나 관광객들의 선호도가 낮아 성공적인 행사인지는 의견이 제각각이다. 춘향제가 관광객들로부터 호응을 얻는 성공적인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춘향전과 춘향가의 주제는 성춘향과 이몽룡의 신분을 초월한 사랑, 변학도의 수정 강요에 저항하는 춘향 정신 등 다양하지만 사랑이 주된 주제이다. 남원시는 사랑의 도시라고 정한 바 있고 춘향제도 사랑 축제를 표방하고 있고, 춘향제의 주제도 사랑의 범주에서 선정되고 있다.<sup>6)</sup>

6) 그동안 진행되었던 춘향제의 주제를 살펴보면 사랑이 주된 주제임을 알 수 있다.  
 1996년(제66회) 사랑, 사랑, 춘향아씨 남원에서 만나요  
 1998(제68회) 춘향사랑 예술로, 전통문화 세계로  
 2000(제70회) 얼씨구 춘향사랑  
 2001(제71회)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2002(제72회) 사랑 사랑 내 사랑, 춘향고를 희망의 미래로  
 2003(제73회) 사랑 사랑 내 사랑, 어화 등등 내 사랑  
 2004(제74회) 머무는 마당, 흐뭇한 감동, 꽃피는 사랑

행사의 주제는 행사를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성을 갖는다. 춘향제의 주제를 보면 당연히 사랑과 관련된 행사 종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춘향제의 주제와 행사 종목, 축제 지향 방향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춘향제의 주된 행사 종목은 춘향제향, 춘향국악대전, 춘향선발대회, 춘향길놀이, 춘향시대 속으로, 춘향창극 등이다. 행사 종목의 이름에 춘향이 공통으로 들어 있지만 제향, 국악경연대회, 미인선발, 길놀이 등으로 단순화할 수 있다. 행사 종목의 명칭이나 내용에 사랑과 관련된 것이 없다. 따라서 춘향제 주제와 행사 종목과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다.

남원에서 춘향제는 관광문화축제가 아닌 전통문화예술축제라고 말한다. 문화관광축제는 소득축제와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춘향제는 관광객의 수가 얼마나 많이 왔고,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느냐를 생각하는 소득축제가 아니란 의미이다. 춘향제는 대한민국의 전통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전통문화예술축제인데 사람들이 전통문화에 관심이 소홀하기 때문에 소득과는 무관하다는 의미이다. 춘향제가 전통문화예술축제란 주장에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다.

그런데 전통문화예술축제가 어떤 것인가의 정의와 범위가 광범위하다. 전통문화는 그 나라에서 발생하여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전해 내려오는 그 나라의 고유한 문화이다. 전통예술은 과거로부터 이어 내려오는, 아름다움을 표현하거나 창조하는 일에 목적을 두고 작품을 제작하는 모든 인간 활동이다. 전통예술의 유형과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가 명쾌한 것은 아니지만 전통음악, 전통춤, 전통연극, 민속놀이, 전통의식으로 분류한다.<sup>7)</sup> 전통문화예술축제인 춘

- 
- 2005(제75회) 한결같은 사랑, 아름다운 사랑
  - 2006(제76회) 한결 같은 사랑, 춘향아씨 남원에서 만나요
  - 2007(제77회) 사랑은 단 하루도 천년입니다
  - 2008(제78회)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 2009(제79회) 사랑 사랑 내사랑!
  - 2010(제80회)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춘향사랑 80년 함께 나뉘요
  - 2011(제81회) 사랑한다면 남원으로 오세요!
  - 2012(제82회) 얼씨구 춘향사랑
  - 2013(제83회) 사랑의 기적 남원에서

7) 한국의 전통예술(2001,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참조 음악(종묘제례악, 판소리, 농악, 거문고산조, 선소리타령, 대금정악, 가야금산조 및 병창, 서도소리, 가곡, 가사, 대금산조, 대취타, 남노들노래, 경기민요, 향계줄풍류, 농요, 제주민요), 전통춤(승무, 살풀이춤, 태평무, 진주검무, 승전무, 처용무, 학연화대합설무), 연극(양주별산대놀이, 송파산대놀이, 봉산탈춤, 강령탈춤,

향제는 전통문화예술 분야 중 전통음악의 판소리가 중심이다.

전통문화예술 중 판소리, 기악, 무용, 가야금병창, 민요 부문에서 경연을 펼치는 춘향국악대전은 전통음악과 전통춤의 분야이다. 춘향국악대전은 40회의 긴 역사를 갖는 행사로, 수많은 명창을 배출하여 그 의미가 크다. 전국적으로 국악경연대회가 연 40곳 이상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대중성이 있어 일반인들이 참여하고 일반 관객이 많이 모이는 행사이기 보다는 소수의 전문 참가자 중심의 행사이란 점에서 아쉬움이 많다.

춘향국악대전은 그 의미를 살려 유지하되 국악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행사가 기획되어야 한다. 전통문화예술을 도외시하는 사람들에게 판소리와 전통춤을 가깝게 하고 흥미를 유발시켜 국악팬으로 만들기 위한 행사가 되어야 춘향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지금도 창극 춘향전 공연을 하고 있지만 더 활성화하여야 한다. 전통무용, 국악, 풍물이 함께 어우러져 있으면 재미를 느낄 수 있다. 마당극 춘향전, 뮤지컬 춘향전, 퓨전 국악, 연극 탈선 춘향전, 미소 춘향전, 폭소 춘향전 등 춘향전과 판소리를 활용하고, 현대인들이 호감을 갖는 다양한 행사를 기획할 수 있다.<sup>8)</sup>

전통문화예술 축제인 춘향제가 매년 사랑을 주제로 행사를 하는데 행사 내용은 사랑의 행사는 없고 전통문화예술 중 판소리가 중심이어서 주제와 행사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현대인들이 전통예술에 대한 관심도가 낮기 때문에 춘향제에 대한 관심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현대인, 관광객들로부터 외면을 받는다고 생각되고 있는 춘향제의 한계를 벗어나는 길은 주제로 선정한 사랑이 녹아든 전통문화예술축제가 되어야 한다. 사랑은 인류 역사상 언제나 중심 테마이었는데, 춘향제가 이처럼 인류 보편적인 주제를 선점하면서 전통문화예술이란 범주에 얽매이다보니 관광객으로부터 외면 받는 상황이 되었다. 이제부터라도 춘향제의 주제인 사랑에 초점을 맞춘 춘향제가 되어

---

은울탈춤, 통영오광대, 고성오광대, 가산 오광대, 수영야류, 동래야류, 하회별신굿놀이, 북청 사자놀이, 발탈, 진도다시래기, 민속놀이(남사당놀이, 강강술래, 안동 차전놀이, 영산 쇠머리대기, 영산 줄다리기, 고싸움놀이, 한 장군놀이, 줄타기, 좌수영 어방놀이, 밀양 백중놀이, 기지시 줄다리기), 의식(은산별신제, 강릉단오제, 영산제, 종묘제례, 양주소놀이굿, 제주 칠머리당굿, 진도씻김굿, 풍어제, 석전대제, 황해도 평산소놀이굿, 경기도 도당굿, 서울세남굿)

8) 다양한 행사를 기획할 수 있지만 경비가 문제이다. 경비 문제는 장을 달리 하여 논하기로 한다.

야 한다.

## 4. 참여자 지향의 춘향제

### 4.1. 지역민 화합의 춘향제

우리나라의 많은 축제는 이벤트 회사가 주인이 되어 기획하여 지역 주민은 오히려 구경꾼, 방관자가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유명 기획사, 이벤트 회사가 계획한 축제가 많아서 거의 모든 축제가 이름만 다를 뿐 행사 내용과 종목은 대동소이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수없이 많은 축제가 다 같은 행사를 치르기 때문에 각각의 축제가 갖는 고유한 독창성이 없다는 이야기이다.

흔히 축제를 말할 때 주민참여형 축제라고 하는데 정작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자발적 참여보다는 행사에 동원된 형태가 많다. 춘향제의 경우도 여기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춘향길놀이에서 중학생들이 참여하다 이제는 학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학교나 학부모들이 길놀이 행사의 참여를 꺼린다고 한다.<sup>9)</sup> 그래서 대안으로 읍면동의 주민을 동원하거나 사회단체를 동원하는데 이것도 여의치 않다. 농번기철에 읍면동 주민을 동원하는 것이 쉽지 않아 격년제로 참여를 독려한다.

주민참여형 축제로 이야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자원봉사이다. 자원봉사도 매우 중요한 부문이기는 하나 자원봉사는 행사의 진행 부문이기 때문에 행사 종목에 있어서의 주민참여형과는 별개이다.

주민이 참여하는 축제라는 의미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주민참여 축제와 외국의 주민참여 축제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축제를 바라보고 참여한다는 의미가 우리나라와 외국은 다른 점이 있다. 스페인 산페르민 투우 축제는 투우를 길에 풀어놓고 시민들과 함께 달리는 행사이다. 매년 팜플로나에서 투우장가

---

9) 만약 학생들이 학습 시간을 빼앗긴다고 하여 참여를 꺼린다면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봉사 점수를 부여하여 동기를 갖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이 당장에는 참여를 꺼리더라도 훗날 성인이 되었을 때는 지금의 남원 시민들이 모두 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춘향제에 참여했었다는 추억을 간직하고 있고 그런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처럼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지 850m의 거리에서 참가자들이 투우경기에 참가하는 황소들과 투우장까지 좁은 골목을 매일 오전 8시부터 수분 동안 격렬하게 함께 달리는 것으로 유명한 행사이다. 투우의 날카로운 뿔에 찔려 심할 경우 중상자가 발생하기도 한다. 행사장 한편에는 응급차를 대기시켜놓는다. 실제로 행사장에서 성난 소의 뿔에 찔려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한다.<sup>10)</sup> 콜롬비아에서 15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투우축제에서도 전 국민들의 열기 속에 열리는데 어떤 때는 1명이 죽고, 18명이 부상당하는 참사로 이어지기도 한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이와 동일한 투우축제가 열린다고 가정해보자. 행사장에서 사망자와 부상자가 있었다면 그 축제를 주관한 책임자와 단체는 엄청난 곤혹을 치러야할 것이고 급기야는 위험한 행사이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할 것이다. 더군다나 것처럼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투우행사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라면 아마도 것처럼 위험한 행사에 참여한 사람의 책임이 더 크다고 비난할 것이다. 이처럼 위험한 행사에 목숨을 걸면서도 참여하는 스페인, 콜롬비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었을까?

매년 8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면 스페인 발렌시아 지방의 작은 마을 부놀에서 토마토축제가 열린다. 축제의 시작은 광장 중앙에 기름을 바른 큰 기둥 꼭대기에 매달린 햄을 따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관광객들은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인간탑을 쌓기도 하고 기둥을 기어오르며 능숙한 솜씨로 햄따기에 도전하여 누군가가 성공하면 폭죽이 터지며 사람들은 모두 ‘토마토, 토마토’를 외치며 잘 익은 토마토가 실린 트럭을 기다린다. 2시간 동안 정신없이 서로 던지고 맞고 하면서 소리 지른다. 어느새 부놀의 작은 마을은 토마토 케첩 속에 폭 잠겨 버리고 발코니에선 더위를 식혀주는 물세례가 폭포처럼 이어지고 거리는 토마토 바다를 이루어 수영을 즐기기도 한다. 2시간이 지나면 폭죽이 터지고 그 이후에는 누구도 토마토를 던져서는 안 된다. 규칙을 어기면 벌금을 물어야 한다. 축제 후의 거리청소는 몇 시간만에 마을의 청소차와 주민들의 능숙한 토마토 파편 제거 솜씨로 모든 것을 빠르게 원상태로 돌려놓는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몇 곳에서 토마토축제가 열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10) 스페인의 투우 축제가 동물 학대행위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토마토축제는 딸기축제, 수박축제와 동일한 형식으로 토마토를 판매하는 행사이다. 다만 한곳에서 스페인 토마토축제를 본떠 만든 것이 토마토풀장이다. 여기에는 어린이들이 들어가서 놀이를 하는 정도이다. 같은 토마토라는 소재를 가지고 축제를 하는데 세계적인 토마토축제와 유사한 내용으로 축제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축제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축제 참여 문화가 외국과 우리나라는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외국은 직접 몸으로 참여하면서 재미와 흥을 느끼는데 비해 우리는 뒷짐을 지고 걸으면서 눈으로 보는 것을 좋아한다. 외국 유명 축제와 우리나라 축제는 참여자 문화가 서로 다르다.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가면축제가 있다. 가족끼리 또는 친구끼리 미리미리 의상과 가면을 완벽하게 준비하여 축제를 즐긴다. 모든 가족이 중세 귀족으로 변장하고 우아하게 산책하는 진풍경을 연출한다. 산마르코 광장에서 펼쳐지는 가면과 의상대회에서는 베네치아의 옛날 가면과 의상, 현재의 가면과 의상이 출품되어 현재와 과거가 만나는 장을 이룬다. 베니스 축제는 남녀노소 누구나 스스로 가면을 쓰고 분장을 하면서 참여하며 즐거운 모습을 보여준다. 가면과 의상을 제작하는데 비용도 꽤 많이 지출될 것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비용지불에 아랑곳하지 않고 축제를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만약 우리나라 춘향제에 주민 스스로 분장을 하고 행사에 참여하자고 하면 과연 열심히 참여할까? 외국과 우리나라의 축제 참여 문화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의 축제는 마쓰리라고 하는데 일본은 마쓰리의 나라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전국적으로 일년 내내 다양한 마쓰리가 열린다. 일본 마쓰리는 상가를 중심으로 상점 주인이나 상인협회 관계자들이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여 주민들이 일년 내내 행사를 준비하여 흥겹게 마쓰리를 즐긴다. 마쓰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나 관광객들은 일본 전통 옷인 기모노, 유카타를 입고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의 축제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참여문화와 우리나라 축제에 참여하는 우리나라 주민들의 참여문화는 상당히 다르다. 외국의 경우는 주민들이 몸으로 직접 참여하면서 즐거움을 느낀다. 거기에 비해 우리나라는 점잖은 체면문화 때문인지 직접 몸으로 참여하지 않고 눈으로 즐기고 관람하며 풍물장터에 가서 음식과 술을 마시는 문화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의

축제는 역동적인 면이 강한데 비해 우리나라 축제는 정적인 축제가 많다. 사실 축제는 일상생활의 일탈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상생활의 연장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축제를 즐기고 나더라도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풀려 후련하다 통쾌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한다. 각 나라마다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문화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나라의 특성, 문화에 적합한 축제문화가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축제는 지역 주민들이 생활하며 공감하고 즐기는 것을 하나로 묶어내는 지역민 통합의 장이다. 축제는 지역 주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고 주체가 되는 장이어야 한다. 그런데 춘향제의 경우 행사를 위해 주민이 동원되어 참여하는 행사가 많다. 좋은 의미의 참여이지만 좀더 엄밀한 의미에서는 강제로 동원된, 끌려나와 참여하는 행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흥겨워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참여하다보니까 참여하는 주민 스스로 흥이 날 수 없다. 참여하는 주민이 흥이 나지 않는데 구경하는 관광객이 흥이 난다면 이상한 일이 아닌가? 그러면 주민들이 흥이 나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시민들이 평소 생활하면서 판소리교실, 시조교실, 연극교실, 인형극교실 등을 통하여 실력을 연마하고 즐기고 있다. 주민들이 평소 즐기고 관심을 갖는 전통문화예술 장르를 행사로 선보여야 한다. 일 년 동안 갈고닦은 전통문화예술의 실력을 춘향제 때 선보이고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축제를 즐기는 모습이 진정한 축제이다. 주민들이 즐기며 흡족해 하는 모습을 지켜볼 때 관광객은 흐뭇함을 느낀다. 왜냐하면 관광객은 전문가들의 높은 수준의 실력을 감상하기도 하지만 즐길 줄 아는 주민들의 분위기를 더 보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주민이 즐기고 주민이 만족하면 관광객은 덩달아 만족한다.

진정으로 주민이 즐기고 만족하는 주민 참여형 축제에 수준 높은 전문가의 공연이 곁들여지면 품격 있는 축제가 된다.

## 4.2. 주민 참여의 춘향제 준비

다른 도시에서의 축제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춘향제에 대한 남원시민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다. 심지어 춘향제는 남원시민들의 자존심이라고 말

할 수 있을 정도로 시민들의 관심과 열정이 높다.

춘향제에 대해 남원 시민들의 관심이 높다는 의미는 단순히 춘향제가 잘 되어 좋은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관심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남원 시민들은 아주 오래 전부터 춘향제를 지켜보았고, 거의 모든 시민들은 자신들이 학생이었을 때 춘향제에 직접 참여하여 길놀이나 등불행렬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다. 성인이 되어서는 각종 행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였고 행사를 진행하여 보기도 했던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춘향제에 대해서는 시민 누구든지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자부하고 있고, 무엇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강력하게 믿고 있다.

이처럼 춘향제에 대해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춘향제의 발전을 위한 큰 자산임과 동시에 춘향제를 주관하는 측에서는 큰 부담이기도 하다. 시민들의 관심을 잘 유도하여 긍정적인 힘으로 협력하면 춘향제의 발전을 위한 커다란 동기 요소가 된다.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비판 의식을 어떻게 긍정적인 힘으로 모아 춘향제 발전을 위한 동력이 되도록 할 것인가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첫째 일반 시민, 문화단체, 행사 추진단체 사이에 적극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춘향제는 행사를 치르기 위해 일반 시민과 문화단체, 행사 추진단체 사이에 적극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왜냐하면 춘향제 행사 시작 3-4개월 전에야 행사 추진단체가 구성되어 행사를 추진하기에 급급했던 것이 사실이다. 행사 준비에 필요한 절대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행사 추진단체 간에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준비에 꼭 필요한 사항들만 논의하는데에서 그친 경우가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행사가 진행되거나 끝난 후가 되면 거의 언제나 일반 시민은 일반 시민대로 불만의 말이 나오고, 문화단체나 추진 단체 간에도 불만이 쌓이곤 했다.

둘째, 행사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춘향제 행사가 끝나면 곧 바로 다음 해의 준비 기구를 구성하여 준비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더 이상한 점은 이러한 사항을 모두 다 알고 있는데 준비 기구를 구성하는 작업이 바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왜 해법을 다 알고 있는데 문제를 풀지 못할까?

그것은 바로 제전위원장 선임 문제와 맞물려 있다. 그동안 몇 년 동안 제전위원장, 집행위원장 선임 문제로 춘향문화선양회와 남원시 사이에 갈등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위원장의 선임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춘향제를 누가 기획하고 주도권을 행사하느냐의 내부 문제와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두 집단 간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변질되기도 했다.

이런 내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선임 문제가 조기에 타결되지 않으면 차기년도 춘향제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획위원, 제전위원을 선임할 수 없게 된다. 기획위원이나 제전위원은 제전위원장이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제전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으면 차기년도의 춘향제를 전혀 준비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거의 고질적으로 제기 되었던 이러한 문제가 최근에는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가 풀려가는 양상이다. 왜냐하면 남원시나 춘향문화선양회가 다 같이 춘향제가 축제 평가 일몰제에 해당되어 정부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힘겨루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상황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춘향제의 외형적인 주도권 싸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춘향제의 질적 내용을 어떻게 잘 개선하여 재미난 춘향제로 만드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늦게나마 인식했다는 의미이다. 그런 의미에서 2014년도 제84회 춘향제 제전위원회가 조기에 구성되어 준비를 차분히,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제전위가 구성되었으면 시민단체, 문화단체와 적극적인 소통의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시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참여 의식을 높여야 한다. 시민공청회를 하면 다양한 의견이 나올 텐데 유용한 의견도 있고, 아이디어는 좋지만 현재의 여건과 상황에는 맞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의견이든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런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좋은 아이디어나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99가지의 이야기를 버리더라도 1가지의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넷째는 문화단체, 종목 추진단체와의 소통이다. 문화단체, 종목 추진단체의 시민들은 좀더 축제에 대한 이해가 높기 때문에 좀더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다. 이들과는 한 번의 대화로 끝낼 것이 아니라

수시로 자주 만나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행사를 추진할 때의 어려운 점,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대화해야 한다.

제전위원장, 집행위원장을 조기에 선임하고 시민, 문화단체, 행사 추진단체와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춘향제의 발전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좋은 방안이 도출될 수 있고, 이런 소통의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서로 불신했던 것들을 해소하고 상호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어떤 결론을 도출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이런 소통의 과정을 통해서 불신이 해소되면 그것이 바로 통합의 길로 가는 것이고, 좋은 춘향제를 만들어가는 기틀을 다지는 것이다.

### 4.3. 관광객 참여의 춘향제

그동안 우리나라의 많은 축제들은 진정으로 관광객의 입장에서 그들이 무엇을 즐기고 하고 싶어하는가를 고민한 적이 없었던 것 같다. 관광객의 입장에서 고민하기 보다는 행사를 추진하는 단체의 입장, 행사를 공급하는 공급자의 입장에서 축제라는 상품을 만들어낸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공급자의 입장이 아니라 축제를 즐기는 수요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하여 수요자 중심의 축제를 기획하고 만들어야 한다.

수요자 만족도 제고란 측면에서 춘향제도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춘향제의 대표 종목이라고 말하는 춘향국악대전, 춘향선발대회가 진정으로 축제의 수요자인 관광객을 위한 행사 종목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우선 춘향제의 대표종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춘향제의 대표종목이라고 말하는지, 말을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살펴보자. 행사를 주관하는 곳에서 대표종목이라고 말하는지 아니면 관광객들이 말하는지 정확히 살펴야 한다. 행사종목별 관광객의 만족도 조사에서도 춘향국악대전과 춘향제는 그리 높은 응답이 나오지 않았다. 실제로 행사장에 관광객이 얼마나 응집하느냐를 살펴봐도 응집력이 높지 않다. 그나마도 춘향제의 대표적 행사로 이미지가 굳건하기 때문에 인지도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

이 두 행사가 춘향제의 대표종목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관광객이 아니라 춘향제를 주관하는 제전위원회의 설명일 뿐이다. 이 두 행사를 주관하는 제전위원이나 단체에서는 대표종목이기 때문에 예산 배정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책

정하고 있다. 춘향제의 딜레마가 여기에 있다. 행사의 예산 배정 비율이 높은 행사가 관광객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어야 성공하는 행사가 될 것이고 그 결과 춘향제가 성공하는 행사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역으로 예산 배정 비율이 높은 행사가 관광객의 호응이 낮다면 결국 춘향제는 관광객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

춘향국악대전이나 춘향선발대회가 명분상으로만 춘향제의 대표종목에 머물러 있으면 결국 춘향제는 우리나라 축제 역사상 가장 오래된 축제라는 명분만 갖고 있는 축제로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명분상의 춘향제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춘향제가 되려면 이 두 행사가 대표종목으로서의 위상을 되찾아 관광객들로부터 호응받아야 한다. 이 두 행사가 진정으로 관광객이 좋아하는 종목으로 변신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춘향길놀이도 새로운, 역동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춘향제전위에서는 춘향길놀이도 대표종목으로 육성하려고 해마다 새롭게 변화 중이다. 그러나 아직은 관광객을 감동시키기에는 춘향길놀이의 행사 내용이 너무 단조롭다. 일차적으로 행사에 참여하는 단체마다 춘향이 중 사랑가, 쑥대머리, 십장가 등 대표적인 눈대목이나 민요 남원산성(등가 타령) 등을 부르면서 노래에 맞는 율동을 하면 좀더 흥이 날 수 있다.

## 5. 사랑 주제의 춘향제

춘향제는 춘향전의 내용을 다양하게 활용한 행사 종목을 개발하여야 한다. 춘향제는 춘향전의 내용을 풍부하게 활용하여 춘향전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의 삶과 제도, 문화를 교육하고 체험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춘향제에 오면 암행어사 제도를 알고 배워 갈 수 있도록 한다. 암행어사 교지와 일반 교지의 전시 및 써보기 체험, 암행어사 마패의 종류 전시 및 마패 탁본 체험, 암행어사 복장 전시 및 체험, 암행어사 출두 체험, 조선시대 형벌 제도 전시 및 체험 등을 특집으로 기획하는 것이 한 예가 될 수 있다.

춘향국악대전 행사장에는 동편제 판소리 명창들과 역대 명창들의 사진, 공연 장면, 전축판 사진 등을 전시하여 볼거리를 다양하게 한다. 춘향국악대전

은 경연뿐만 아니라 판소리와 그에 얽힌 이야기를 배울 수 있고, 알 수 있는 교육과 체험의 장이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춘향국악대전은 판소리의 보존, 전송의 경연대회 그 이상의 판소리 대중화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sup>11)</sup>

춘향전 역대 영화 포스터, 중요 장면, 배우들의 사진을 전시하고 역대 춘향전 영화를 상영한다. 요천 변에 천막을 치고 옛날 영화를 보던 때를 그대로 재현하여 상영한다. 위와 같이 춘향전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풍성하게 한다.<sup>12)</sup> 한국영화 역사상 동일 주제를 대상으로 가장 많이 제작 상영된 작품이 춘향전이다. 영화와 춘향전에 숨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를 발굴하여 춘향제를 스토리텔링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전통문화예술축제인 춘향제는 사랑의 도시인 남원에서 펼쳐지는 사랑 축제이라는 점이다. 춘향제는 전통예술 장르의 행사뿐만 아니라 사랑과 관련된 행사가 풍성하게 펼쳐져야 사랑 축제가 될 수 있다. 춘향제는 춘향과 몽룡의 사랑을 뛰어넘어 인류 보편적인 사랑을 지향한 축제가 되어야 한다. 사랑은 지역과 인종, 시대를 초월하여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갈망하는 주제이다. 더군다나 남원은 연인 사랑인 춘향전의 사랑뿐만 아니라 부부 사랑, 형제 사랑, 가족 사랑, 국가 사랑 등 모든 사랑이 남원을 배경으로 한 문학 작품이 있다. 연인 사랑은 춘향전과 만복사저포기가 있고, 부부 사랑은 평범한 주부 시인인 김삼의당, 최명희의 혼불이 있으며, 형제 사랑은 흥부전이 있고, 가족사랑은 정유재란을 배경으로 한 최척전이 있다. 국가를 사랑한 애국정신은 정유재란 때 조선을 지키기 위해 순국한 만인의충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남원과 춘향제는 한국을 뛰어넘은 세계적인 사랑의 성지이며 사랑의 축제로 활짝 피어나야 한다. 춘향제가 사랑의 축제로 발전하기 위한 첫

11) 판소리도 조선 영정조 시대에는 대중음악의 범주이었다. 따라서 판소리의 전통 보존뿐만 아니라 당대의 대중성을 획득하는 것이 당 시대 대중음악의 한 핵이다. 당 시대의 대중이 선호하는 음악의 지평이 넓어져야 판소리의 전통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저변이 확대될 수 있다.

12) 역대 영화 춘향전 상영 18편의 작품은 다음과 같다. 1923년 춘향전 하야카와 고슈 감독 무성영화, 1935년 춘향전 이명우 감독 최초의 발성영화, 1936년 그 후의 이도령 이규환 감독, 1955년 춘향전, 김재중 감독, 1957년 대춘향전 김향 감독, 1958년 춘향전 이만수 감독, 1960년 탈선 춘향전 이경춘 감독, 1961년 춘향전 홍성기 감독, 1961년 성춘향 신상옥 감독, 1963년 한양에서 온 성춘향 이동훈 감독, 1968년 춘향 김수용 감독, 1971년 춘향전 이성구 감독, 1972년 방자와 향단이 이형표 감독, 1976년 성춘향전 박태원 감독, 1987년 춘향전 한상훈 감독, 1999년 성춘향전 ANDY KIM 감독, 2000년 춘향전 임권택 감독, 2010년 방자전 김만곤 감독.

단계로 연인의 사랑에 초점을 둔 축제 행사를 기획할 필요가 있다.

사랑의 편지 콘테스트, 사랑 커플 사진 콘테스트, 연인 사랑골든벨(사랑의 이심전심, 사랑 확인), 사랑의 프리포즈, 사랑의 중 울리기 등 사랑과 관련된 행사를 기획하여 즐기고 보면서 사랑의 힘을 느끼게 한다. 예를 들면 연인 사랑골든벨(사랑의 이심전심, 사랑 확인)은 젊은 연인이나 부부를 대상으로 인터넷 참여 신청을 받아 둘 사이에 마음이 얼마나 통하는지를 알아보는 퀴즈를 풀어 최종 우승자를 뽑는 행사이다. 신청자가 많다면 4일간 날마다 경연을 하고, 그날그날 우승자만 모아 마지막 날 최종 경연을 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문제는 ‘지금 자장면과 짬뽕을 먹는다면 무엇이 먹고 싶은가?’라고 하여 둘이 동일한 답을 써야 통과하고, 서로 다른 답을 쓰면 연인 간에 이심전심이 안 된 것으로 하여 탈락하는 것이다.

2013년에 처음 실시한 사랑등 띄우기는 신규행사로 아이디어는 좋았으나 운영이 역동적이지 못해 감동을 주지 못 했다. 예를 들면 행사장 주변에 야간의 장식전구를 활용하여 ‘당신의 사랑을 고백해보세요’, ‘소원을 빌어보세요’라고 글을 써서 관광객의 시선과 관심을 끌도록 유도했으면 더 좋았다. 등을 띄우려고 신청하는 사람을 그때그때 바로 등을 띄우게 하지 않고 10분이나 15분 단위로 모아, 하나의 무리를 지어 동시에 함께 등을 띄우도록 한다. 등을 띄우기 전에 기타를 치면서 사랑 노래를 합창하고, 서로에게 사랑 표현의 포옹이나 사랑의 말을 전하는 간단한 이벤트를 한다. 등을 띄우기 전의 이벤트가 하나의 볼거리가 될 수 있게 한다.

등을 띄우는 곳과 등 저지선인 승월교가 약 10미터 정도로 짧아 등이 요천에 떠내려 오는 광경을 효율적으로 연출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춘향교 쪽으로 100미터 정도 더 올라간 지점에서 등을 띄워 100-150 미터는 등이 떠내려 오도록 해야 한다.

젊은 사람들이 호감을 갖는 행사를 기획하여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만드는 춘향제가 되어야 한다. 춘향제는 사랑 주제의 행사를 기획하여 춘향 정절과 사랑의 축제로 승화해야 한다.

## 6. 축제 예산과 행사 종목

춘향제 행사를 얼마나 풍성하고 재미있게 기획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어진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를 할 수 있게 기획하느냐가 중요하다. 결국 행사는 예산과 같이 움직인다. 춘향제 행사의 변화는 예산 배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 문제는 비단 제83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던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춘향제의 변화를 위해 현행 예산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더 확보하느냐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만약 현행 예산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면 현재의 예산 배정 방식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예산 배정 방식의 변화가 있으려면 기존의 큰 행사를 축소 또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행의 행사처럼 진행될 수밖에 없다. 가장 좋은 방법은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행사를 새롭게 기획하는 것인데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다.

춘향제 예산이 12억이든 15억이든 거의 관계없이, 85% 이상이 고정적 행사에 배정된다. 그 외의 금액인 1억5천이나 약간 상회하는 금액을 나머지 행사에 배정하기 위해, 어떤 행사는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 매우 기계적인 일을 반복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행사의 변화란 거의 10% 미만의 변화밖에 기대할 수 없게 되어 큰 틀에서 볼 때는 변화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매년 반복된다.

제83회 예산 내역 중 거의 고정적으로 지출될 수밖에 없는 예산을 살펴보기로 한다.

출범식, 환영만찬, 개막식, 개막식무대 설치, 폐막식, 시설운영비, 행사추진비, 홍보 등 행사 준비성 예산이 5억 7천만원.

춘향선발대회, 춘향국악대전, 사랑등불행렬, 춘향길놀이, 춘향시대속으로 행사비용이 4억 1천만원.

행사준비성 예산과 중요 행사비용의 합계가 9억 8천만 원으로 약 10억 원 정도이다.

제83회 춘향제 행사비가 약12억이라면 그 외의 대부분 많은 행사는 2억으로 치뤄야 하는데, 그 중에도 춘향제향과 국악대향연, 춘향가연창, 춘향어울

림마당, 사랑등띠우기가 1억 1천만원이다. 그렇다면 그 외의 행사는 1억 정도로 5일간 행사를 치러야 하는데 과연 훌륭한 춘향제 행사가 가능하겠는가? 강변문화마당, 사랑체험부스, 특산물전시, 그림그리기대회, 사진촬영대회 등은 거의 300-4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된다. 춘향그네체험도 1700만원 예산 중 초청 관련비 1200만원을 제외하면 500만원이 배정된다. 몇몇 행사에 예산이 집중 배정되면 다른 행사는 거의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위에 열거한 행사들이 행사비 대비 호응과 효과가 있는 행사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한두 가지 행사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선호하는 행사가 아닌 경우가 많다. 춘향제 행사가 85%의 예산을 관광객 비선호 행사에 집중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춘향제가 비선호 행사로 전락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산 집중화의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춘향제의 명분과 상징성 때문에 꼭 필요한 행사라면 지금처럼 진행하지 않고 관광객의 호응과 관심을 유도하여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행사 주관 단체와 관련 행사에 관심 있는 시민, 전문가들이 서로 토론하여 좋은 진행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진행 방법에 대한 토론 없이 전년도와 유사한 방법으로 계속 행사를 진행하면 춘향제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처럼 예산을 배분, 진행하고 그 외의 예산을 더 확보하여 진정으로 관광객이 선호하고 관심을 갖는 행사를 개발하여 제대로 된 행사를 기획해야 한다.

## 7. 마무리

지금까지 이 글에서는 2013년 현재 우리나라 축제 중 역사가 가장 오래된 춘향제의 현황과 향후 나아가야 할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였다. 춘향제는 우리나라에 변변한 축제가 없을 일제강점기 때인 1931년, 민족음악의 대명사인 판소리 춘향가의 대중적 영향력과 춘향제향을 결합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축제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춘향제는 83회를 이어오면서 사랑의 테마도시 남원을 대표하는 축제로서 매년 사랑을 주제로 한국 최고의 전통문화축제이자 문화관광축제로 개최되었

다. 춘향제는 우리나라 어느 축제도 가지지 못한 문화적 자산을 가지고 있고, 사랑을 주제로 한 축제는 춘향제가 전국에서 유일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축제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춘향제는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세계의 3대 사랑 축제로 자리매김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사랑은 온 인류가 추구한 영원한 이상향이다. 사랑은 미움과 질투를 포용과 화해의 장으로 이끄는 무한한 생명의, 화합의 힘이다. 인류가 자기중심적 사고와 갈등에서 벗어나 하나로 통합하는 정신은 ‘우리는 하나, 사랑으로 하나’라는 전 세계적 시대적 의미가 절실한 때이다. 이처럼 중요한 시대적 사명이 요구된 때 남원의 춘향제가 전 인류의 영원한 숙제인 사랑의 축제, 사랑의 박람회를 개최하여, 전 세계 인류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때가 되었다. 온 지구를 향한, 전 인류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를 남원의 춘향제에서부터 시작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운동의 필요성이 충분하다. 숭고한 춘향정신을 세계적 사랑축제로 승화시켜, 국제적인 사랑의 축제는 이태리 아레나축제(로미오와 줄리엣), 중국의 홍루몽 축제, 한국 춘향제로 꽃피워야 한다.

## 〈참고문헌〉

- 김 면 외(2004), 『축제로 이어지는 한국과 유럽』, 연세대학교출판부.  
김기형, 서정섭(2001), 『춘향제 70년사』, 춘향문화선양회.  
남원춘향제건설팀(2006), 『남원 춘향제 건설팀 보고서』, 문화관광부.  
신우성(2004), 『관광자원의 이해』, 기문사.  
윤종선(2012), 『한국 고전과 콘텐츠 개발』, 커뮤니케이션북스.  
채용식(2010), 『밀레니엄 시대를 위한 관광축제 이벤트론』, 학문사

## 【국문초록】

이 글의 목적은 우리나라 대표 축제 중 역사가 2013년 현재 제83회로 가장 오래된 춘향제의 현황과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 있다.

춘향제는 사랑의 테마도시 남원을 대표하는 축제로서 매년 사랑을 주제로 한국 최고의 전통문화축제이자 문화관광축제로 개최되고 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연속 우수축제로 선정됐던 춘향제를 한 단계 위인 최우수 축제로 승격시키기 위해 남원시는 심혈을 기울여 왔었다.

춘향제는 우리나라 어느 축제도 가지지 못한 문화적 자산을 가지고 있고, 사랑을 주제로 한 축제는 춘향제가 전국에서 유일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축제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춘향제가 전통문화예술축제임에는 틀림없으나 관광객이나 시민에게서 사랑받는 축제로 승화되어야 춘향제가 세계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다.

주제어 : 춘향제, 전통문화예술축제, 사랑 축제, 참여형 축제, 춘향국악대전, 춘향길놀이, 사랑등 띄우기

【Abstracts】

## A study on Chunhyang Festival of 'Love Contents'

Seo, Jeongseop

The main purposes of this writing are to look into the current status of Chunhyang Festival that is one of the oldest festivals in my country, having 83-year-old history and seek for its direction forward.

Chunhyang Festival is held every year as a representative one of Namwon, which is Korea's best traditional and cultural tourism festival. It was awarded as one of the excellent festivals for four years in a row from 2009 to 2012. Now Namwon City has endeavored to elevate its rank to the best that is one level higher than the excellent one.

Chunhyang Festival has abundant cultural assets that are difficult to be found in other festivals. It is also the only festival whose theme is 'love'. These two important factors will make it possible to lead it from the country's one to the world's one. It sure is the traditional and cultural festival, but, first of all, it should be loved by the tourists and Namwon citizens in order to be able to be upgraded to one of the international festival.

Key words : Chunhyang Festival, The Traditional and cultural tourism festival, Love Festival, Participation Festival, Chunhyang Korean classical music contest, Chunhyang costume parade, Floating Love Lantern

이 논문은 2013년 6월 3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3년 7월 26일에 심사 완료  
되어 2013년 8월 6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